왜 스모선수 몸집은 커야 하나요?

체중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각 체급별 우승자를 가리는 우리나라의 씨름과는 달리 스모는 모든 선수가 체중과 등급에 상관없이 대전을 하기 때문에 몸집의 크기가 매우 중요함

1. 스모의 경기방식

ㅇ 실제 스모 경기를 보면 두 선수가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엄격한 격식을 갖춘 일종의 의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음

- 먼저 시합에 앞서 모든 참가 선수들이 등장하는 도효이리(土俵入り)가 행해지는데 이때 화려한 복장으로 일사불란한 몸동작을 선보이는 선수들에게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냄
- 이 의식이 끝나면 다시 안으로 돌아갔다가 본인의 경기 순번의 2경기 전에 도효(土俵, 씨름의 모래판에 해당하는 곳)아래에 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호명되면 도효로 올라감
- 도효 위에 올라가서 힘차게 뿌리는 소금을 키요메노시노(清めの塩)라고 하는데 이 같은 행동은 소금이 액운을 막아준다는 의미와 더불어 선수들이 넘어져 상처가 났을 때 소독처리를 할 수 있는 부대효과도 있기 때문임
- 소금을 뿌린 후에는 옆에 놓여있는 치카라미즈(力水)를 한입 마시고 치카라가미(力紙)로 입을 닦는데, 물은 정화수로 시합 전 기를 모으는 의미가 있으며 입을 닦는 종이는 몸과 마음을 맑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

- 이러한 모든 움직임을 끝내면 양 발을 번갈아 높이 옆으로 쳐들면서 땅을 다지는듯한 몸짓은 시코(四股)라고 하며, 상대와 마주보고 두 손을 땅에 대고 상대를 노려보는 행동은 시키리(仕切り)라고 하는데 경기의 시작을 의미함

ㅇ 경기는 도효 밖으로 누군가가 밀려나거나 발바닥 이외의 신체가 땅에 닿는 것으로 승부가 결정됨

- 단순히 밀쳐내는 것으로만 보이는 스모에도 무려 70여 가지의 기술이 있고, 승부가 난 후 교우지(行司, 심판)가 들고 있던 부채모양의 군바이(軍配)를 이긴 쪽을 향해 들어 승리했음을 알림

- 패한 선수는 바로 도효에서 내려가지만 이긴 선수는 잠시 남아 오른손을 좌우로 저으며 신에게 감사를 표시함

- 이때 교우지는 군바이 위에 스폰서가 되어준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해지는 상금을 얹어 선수에게 줌

2. 몸집이 커야하는 이유

ㅇ 우리나라 씨름은 권투와 같이 체중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각 체급별 우승자를 가려내지만, 스모는 모든 선수가 체중과 등급에 관계없이 대전함

- 따라서 상대를 밀고내고 넘어뜨려 승리하기 위해서는 몸의 근육과 몸무게가 매우 중요함

ㅇ 한편 스모경기는 선수들을 임의로 동과 서로 나뉘고 15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데 동서간의 팀 별 대항이 아니라 개인전으로 함

- 매일 다른 선수와 경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에게 우승컵이 돌아감

○ 또한 스모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요코즈나(横綱)로 과거 300년이 넘는 스모 역사에서 요코즈나가 된 선수는 겨우 6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임

- 그러나 한번 요코즈나가 되면 성적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강등되는 경우는 없으며, 일반적으로 요코즈나 바로 아래 등급인 오오제키(大関) 시절에 혼바쇼에서 연이어 우승하면 요코즈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

- 그러나 시합 성적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격 여부는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후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스모의 실력과 더불어 요코즈나가 갖추어야 할 덕목도 함께 심사가 됨

- 매번 시합이 끝나면 각 선수들의 등급이 경기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 다음 경기에 반영되는데 이때 강등되고 승격되어 다시 조정되어 발표되는 순위표를 반즈케(番付)라고 함